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2012 OECD 농정시장작업반(55차 APM) 및 제68차 농업무역합
동작업반(68차 JWPAT) 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서정아 사무관
OECD 대표부 이안호 참서관(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11일(일)	인천 → 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1월 12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JWPAT 회의참석	2박 2일
11월 13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3박 3일
11월 14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3박 4일
11월 14일(수) ~15일(목)	파리 → 인천	귀국	3박 5일

4. OECD 회의 의제목록

4.1. 68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Agenda of the 68th Session	TAD/TC/CA/WP/A(2012)2
Item 2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67th Session	TAD/TC/CA/WP/M(2012)1
Item 3	Non-tariff measures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ood-import related regulations –Experiences from some regional trade agreements	TAD/TC/CA/WP(2012)1/REV1
Item 4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Chilean fruit exports	TAD/TC/CA/WP(2012)3/REV1
Item 5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Preliminary report on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
Item 6	Estimating the constraints to agricultural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COM/DCD/TAD(2012)16/REV1
Item 7	Designation of the members of the Bureau of the Working Party on JWPAT in 2013	
Item 8	Future work and seminars	
Item 9	Other business	

4.2. 58차 농정시장작업반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Draft agenda of the 58 th session	TAD/CA/APM/WP/A(2012)3
Item 2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7 th session	TAD/CA/APM/WP/M(2012)2
Item 3	Proposal for the 2013 report "Agricultural polic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2 -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TAD/CA/APM/WP(2012)14
Item 4	Review of policies in the 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 (GSSE): Revised proposed improvements	TAD/CA/APM/WP(2012)12/REV1
Item 5	Measuring the incidence of policies along the food chain: Preliminary report	TAD/CA/APM/WP(2012)15
Item 6	Agricultural outlook activity update and plans for 2013 report	TAD/CA/APM/WP(2012)16
Item 7	OECD work on investment in agriculture	
7.a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in Agriculture (PFIA)	COM/DAF/TAD(2012)1
7.b	FAO-OECD Practical Guide for implementing existing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al supply chains	Oral report
Item 8	Waste management in the food chain: Update	TAD/CA/APM/WP/RD(2012)6
Item 9	Update on the MAFAP project	Oral report
Item 10	a) Overview of the risk management project	Oral report
	b) Next steps on risk and livestock diseases: A conference proposal	TAD/CA/APM/WP(2012)16
Item 11	Smallholder risk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AD/CA/APM/WP(2012)17
Item 12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for the food and agriculture system	TAD/CA/APM/WP(2012)19
Item 13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13.a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TAD/CA/APM/WP(2012)19
13.b	Comparative analysis of farm performance	TAD/CA/APM/WP(2012)20
Item 15	Designation of the members of the Bureau of the Working Party on APM in 2012	
Item 16	Other business	Oral report
13.a	Outcome of written procedures since the last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TAD/CA/APM/WP/RD(2012)8
13.b	Food chain network meeting	Oral report
13.c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Indonesia: launch of the report and policy seminar	Oral report
13.d	Global Forum on Agriculture	Oral report
13.e	Progress report on APM activities	TAD/CA/APM/WP/RD(2012)9

5. OECD 제68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 및 제 58차 농정시장 작업반(APM) 회의결과

5.1 핵심요지

(1) 제68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 비관세 조치와 관련,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2개의 보고서 공개 결정을 논의하였음.
- '농산물 수출제한'과 '개도국의 농산물 교역의 제약요인'대한 토의가 있었음.
 - 농산물 수출제한 의제 관련하여 사무국은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다 많은 사례 분석을 하기로 함.
- 2013년 의장단 임명, 작업반 활동계획 및 향후 세미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제58차 농정시장작업반

- 농업정책평가분야에서 '2013년 농업정책평가' 보고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 및 구성 등을 확정하였음. 또한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정책보고서', '식품체인에 대한 정책 영향 측정' 보고서에 대한 논의와 정보제공이 있었음.
- 농업시장분야에서는 '2013년 세계농업전망 보고서'에 대한 내용 및 특별주제(중국농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수정기로 하고 확정하였음.
- 농업투자분야에서는 '농업투자의 정책틀(PFIA)'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식품체인에서의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식품체인에서의 폐기물관리' 보고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회원국들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위험관리분야에서는 '가축질병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등에 대한 소개

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농업과 개발분야에서 '개도국에서의 소농의 위험관리'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OECD 내 공통관심사로 농업위원회 2011-12년도 PWB 의제였던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과 농업 시스템의 도전'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5.2 관찰 및 평가/건의

- 농산물 수출제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자료수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정도이나 다수의 회원국들이 보다 상세한 다음단계의 연구를 희망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무국은 수출제한 조치 국가들로부터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점을 들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 나가면서 정량분석에 대한 연구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보고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사무국의 추가 연구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세계농업전망 보고서의 특별주제인 “중국의 농업전망”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업정책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은 ① 지난 40년 동안 중국 농업의 성장과정 리뷰, ② 중국의 지속적인 빠른 경제성장이 식품 수요와 식품 구조에 미치는 영향, ③ 개별 농산물 시장의 전망 ④ 국내 및 국제 시장과 관련한 위험 및 불확실성 요인 등을 포함할 것이며 2013년 6월 말 북경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음
- 식품 체인에서의 식품 폐기물 관리 의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Morvarid Bagherazadeh가 한국의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별도 meeting을 통해 설명을 듣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로 함.
 - 따라서 관련부처인 환경부, 부내 축산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등과 협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송부할 필요가 있음.

- 가축질병 위험관리 의제와 관련하여 OECD와 OIE 주관으로 2013년 6월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에 관련 부서 정책담당자와 과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질병의 경제적 파급력 분석, 대응 정책의 수립,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질병 예방 및 통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식량안보(식품과 농업 시스템에 대한 도전) 관련 보고서 논의 시 수출국(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수입국(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간 식량 안보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음.
 - 향후 계획이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라는 수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국들과 공조하여 수입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농업무역공동작업반과 농업정책시장작업반에서 다루는 보고서에는 경제적인 모형개발 및 분석 뿐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나 분석이 많으므로 국내 경제학, 농업경제학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하여 의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5.3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

(1) 제68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식품수입 관련 규제의 설계와 이행-지역무역협정의 경험으로부터: 보고서 공개 결정>

- 사무국은 보고서에서 잠재적으로 교역에 영향을 주는 식품 관련 규제의 시행과정과 설계절차 등을 사례연구로 비교·분석하였음을 설명하고 보고서 공개를 논의함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EU,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보고서 공개를 지지하였으며 일부 명확하지 못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공개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공개를하기로 하고 서면의견은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함.

<지역무역협정이 칠레과일 수출에 미친 영향 : 보고서 공개 결정>

- 사무국은 그간의 경위와 예산한정으로 과일, 와인 부문만 다루었음을 설명하고 보고서 공개를 논의함
- 칠레, 한국, 미국, 영국, EU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보고서 공개를 지지하였으며 한국은 칠레산 포도의 수출증가에 미치는 요인으로 관세인하 외에도 세계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의 수출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 사무국은 12월 3일까지 서면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수정 보완 후 공개키로 결정함.

<농산물 수출 제한 : 보고서 토의>

- 사무국은 최근 주요 곡물생산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강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이 다음 작업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스위스 : WTO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제한도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보고서에서 수출제한조치들의 적합성(WTO 규정)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시할 것을 요청함.
- 일본 : 2008년에 수출제한조치가 가장 많았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별 수출제한조치 중에 WTO에 통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시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함(Annex 1 표).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하여 2007~2011 기간에 도입된 수출제한조치의 국제곡물시장과 수입국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함.
- 프랑스 :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국가와 품목들이 불충분하며, 수출제한조치의 유형도 포괄적이지 않아 보고서에 제시된 조치들 외에 다른 유형이 수출제한조치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개별 수출제한조치들의 적용기간을 단순하게 일시적, 장기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함을 강조함.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그 이유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하며 수출제한조치가 수입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모형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함.
- EU : 계량모형 적용, 개별 수출제한조치의 적법성 여부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해 지지함.
- 미국 : 회원국들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 다음 단계에 대한 사무국의 견해를 문의함
- 영국 : 수출제한조치가 도입된 전후 시기를 단순 비교하거나, 도입 빈도를 기준으로 수출제한조치의 강도(파급력)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수출제한조치는 국제농산물가격의 변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계량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본 보고서는 2007~2011(2012) 기간 동안 15개국(농산물 수출대국)을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밝혀진 정성적인 분석내용(수출제한조치의 빈도와 변화를 중심으로)을 제시하였고 비회원국들의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 구하기 쉽지 않음을 설명함.

- 회원국들이 제안한 계량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는 하나, 전망분석을 목적으로하는 Aglink-Cosimo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시나리오 설정 등 여러 제약조건들이 존재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일 주제로 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원자재(raw material)에 관한 연구의 진행방향을 참조할 것이며 향후 작업계획(정량적인 접근방식 포함)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향후 작업계획을 설명함.
- 수출제한조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어떤 품목에 어떤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한 가장 큰 목적은 수출제한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수입국에 미치는 과급영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수출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기도 함을 설명함.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의 제약요인 측정 : 보고서 토의>

- 이 보고서는 무역위원회의 2011-12 작업 및 예산계획(PWB)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일환이며, 2012년 9월 개발지원위원회와 무역위원회의 “무역을 위한 원조”작업반 합동 모임에서 논의되었음.
- 사무국은 본 보고서에서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약하는 공급 측면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정책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을 설명함.
- 프랑스와 EU,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만이 다음과 같이 견해를 제시하였음.
 - 프랑스 : 모형분석에 도입된 관세무역 제한지수와 비관세조치 제한지수가 적절한 변수선택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함.
 - 미국 : 계량분석을 통해 도출된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분석결과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EU :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도국의 수출 제약요인들과 개도국의 위험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연계해서 향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13년 JWPAT 의장단 선출 및 활동계획 논의>

- 2013년 농업무역공동작업반의 의장단 선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구성함
- 사무국은 지난 2011년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서 JWPAT 회의 중 일부 (오전 또는 오후)를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2013년에 “경제위기 시대에 농식품 무역에 관한 보호주의의 성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작업방향과 다른 주제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대다수의 회원국이 사무국이 제안한 세미나 주제에 대해 동의한 가운데 중점을 뒀야 하는 특정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일본과 스위스는 농산물 수출제한, 미국은 비관세장벽, 아르헨티나는 수입국의 보호주의, 네델란드는 지역무역협정(RTA)을 주제를 제안함.
 - 이외 영국은 농산물 무역에 관한 보호주의의 토대가 되는 정치경제학 측면에 초점을 둔 세미나를 제안하였으며, 캐나다는 생산성 향상, 혁신, 농산물 교역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함.

(2) 제58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2013년 농업정책평가보고서>

- OECD 사무국이 매년 발간하는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보고서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보고서임. 사무국은 이번 에 제시한 보고서 구성(안)은 2011년 구성과 동일하되, 단지 Box 처리되어 강조하는 부분이 ① 미국의 정책변화, ② OECD국가에서의 식품낭비에 대한 증거, ③ 영농 성과의 국가 간 비교, ④ 농업환경정책의 발달 등임을 설명함.
 - 사무국은 2013년 M&E 보고서는 2013년 5월 21-23 APM 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하고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보고서에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포함되는 것을 포함하여 신흥경제국의 연계를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내년도 M&E 보고서의 형식에 대해서 동의함. 다만 BOX로 처리할 부분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일본 : 최근의 국제농산물가격 급등과 식품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미국 : EU의 농업정책의 변화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영국 : 미국 Farm Bill 내용을 포함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제안함.
- 독일 : 신흥경제국(EE)과 회원국 식품낭비(food loss)의 구성요소, 전체 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비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프랑스 : 낙농분야와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 분야의 추가가 필요하며 최근하다고 지적함
- EU : Box에 포함되는 여러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전달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그 외 스웨덴, 터키, 뉴질랜드, 벨지움 등도 보고서를 지지함.

- 사무국은 작년 Outlook에서 바이오연료를 특별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내년도 M&E 보고서에서 이를 다시 BOX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함.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정책 보고서>

- 사무국은 이 보고서가 기존의 GSSE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작업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출되었다고 설명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의 GSSE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실증적인 시범연구(사례)를 후속 작업으로 제안함.
 - 캐나다 : GSSE 유형의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므로 GSSE 개선이 장기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언급함. 세부 분류의 경우 국가마다 항목이 다를 것이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프랑스 :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여 개선점이 많지 않고 항목 분류는 보다 세밀하게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일본 : GSSE 재분류 의미와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길 요청하였음.
 - 독일 : GSSE 유형의 정책이 갈수록 늘어나고 PSE 정책들이 축소되면서, 기존에 PSE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GSSE 타입으로 개편되는 경우가 많음.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안 될 경우 PSE와 GSSE 이중으로 산정될 가능

성이 있음을 언급함.

- 한국 : 새로 개정된 GSSE 분류는 보다 구체화되고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며 Box4에서 제시한 분류내역 중 '식품검사 및 통제'와 그 이하 4개 항목은 별도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함.
- 영국 : 국가 간 비교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분류체계를 적용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노르웨이 : GSSE와 PSE, GSSE와 비GSSE 경계가 여전히 불투명함.
- EU : 현재의 분류와 정의가 포괄적임을 지적함.

- 사무국은 여건 조성 측면에서 GSSE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농정환경에 부합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GSSE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다수의 회원국들이 제안한 대로 2개 국가 이상의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사례연구의 대상국으로 참여해 줄 국가의 신청을 받아 2013년 5월 APM에서 시범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함.

<식품체인에 대한 정책 영향 측정 : 정보제공>

- 사무국은 보고서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대표하는 비료와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DB 구축 상황과 향후 작업진행 계획을 보고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실증분석 전문가의 컨설팅 등 구체적인 다음단계 계획안을 담은 결과보고서 초안을 2013년 APM 회의에 제출할 계획임.
-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의 병행을 기대하며 비료와 바이오연료 산업은 상위 몇 개국에 시장 집중도가 높으므로 농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사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해야함.
 - 일본 : 국제교역에서 비료 수출은 소수의 나라들로 제한되어 있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감안해야 함. 실증분석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계획을 환영함.

- 사무국은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고려하겠지만, 공급체인 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한다고 설명함. 비료, 바이오연료산업에서는 실제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환경정책이나 규제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가급적이면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2013년 세계농업전망>

- OECD-FAO 세계농업전망 2013-22」(OECD-FAO Agricultural Outlook) 작성을 위한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기 위함
 - 사무국은 OECD는 FAO와 공동으로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세계 농업부문 추세 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간, 기본적인 구성은 지금까지의 보고서와 동일하나, 면화 품목을 추가하고 특별주제로서 “중국의 농업전망”을 다룰 예정라고 발표함.
- 회원국들은 중국의 농업전망을 특별주제로 다루는 내년도 전망보고 작업에 지지를 표시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OECD 농업위원회 차원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함.
- 사무국은 중국과의 내년도 전망대회(발표) 진행에 대해 협의 중이며 전망 발표를 전후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1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주제는 농업생산성 증대와 같은 국제적 관심 이슈 중에서 선택할 계획임.
 - 전망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정책수립 등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목적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도 가능하므로 전망보고서 작업에서 생성된 통계 및 정보 등을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함.

<농업투자를 위한 정책 틀(PFIA) : 보고서 논의>

- 사무국은 보고서의 목적이 민간부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농업투자에 관한 정책틀을 10개 부분(투자정책, 투자증진과 이용, 인프라구축, 무역정책, 금융섹터발전, 인적자원 및 R&D, 조세정책, 위험관리, 책임있는 사업규범, 환경)으로 나누어 기술함.
 - 본 보고서는 농업위원회와 투자위원회의 공동지원 하에 작성된 보고서로서 개발지원위원회(DAC)와 금융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침.

- 주요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투자위원회와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는데 의의를 두는 반면, 일반적인 비즈니스 투자와는 달리 농업투자는 농업, 농촌, 자원, 민간/정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프랑스 : 농업투자는 일반비즈니스 투자와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동 보고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고 평가함.
 - EU : 농업과 개발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OECD의 축적된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농업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발언함.
 - 미국 : 본 보고서를 계기로 농업분야 투자(민간, 정부)에도 국제표준이 설정되기를 기대함.
 - 이외에 일본, 스위스, 영국, 호주 등이 보고서의 보완점을 지적함.
- 사무국은 당초의 목적대로 책임 있는 경영투자 측면에서 농업분야의 투자를 접근하고자 했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지적한대로 OECD의 결과물을 활용해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특성들을 고려하여 농업투자정책의 틀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함.

<식품 체인에서의 식품 폐기물 관리 : 정보제공>

- 사무국은 OECD 국가들에서의 식품 공급이 세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식품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며,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그동안의 진전 내용과 향후 작업계획을 발표함.
 - 회원국들은 환경지표 관련 설문지를 작성·제출(12월 말까지)하고 각국 담당자 지정 및 사무국과의 연계 협조를 요청함 .
 - 2013년 3월 APM에서 초안을 제출(11월 APM에 수정본 제출 계획)하고 6월에는 4차 OECD 식품체인분석네트워크 회의에서 식품 낭비(food waste) 관련 데이터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네트워크 회의의 목적은 ① 민간부문과 정책담당자의 대화의 장 마련, ② 식품 낭비 감소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규명, ③ 식품 낭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④ 식품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 등임
-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제시한 향후 작업 계획과 일정에 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 등의 의견을 개진함.
 - 벨기에 : 식품낭비 감소는 EU의 우선순위 정책임.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EU : 식품낭비는 지속가능한 식품수급의 문제이며, 농업과 식품, 그리고 건강을 연결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지함.
- 일본 : FAO와 EU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낭비 감소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신흥경제국으로 중국을 추천. 일본의 식품낭비 감소 정책의 경험을 공유할 의사 있다고 밝힘.
- 미국 : 식품낭비 관련 연구를 현재 ERS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OECD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경제적 관점에서 식품낭비(waste), 식품손실(loss)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함.

<위험관리 프로젝트 개괄>

- a. 사무국은 2011-12 예산작업계획(PWB)하에서 진행되어 온 위험관리 작업들의 진행경과를 개괄하여 소개함
 - b. 가축질병 위험 관련 향후 작업 계획 : 보고서 논의
- 사무국은 ‘가축질병 위험관리’는 농업위의 2013/14 PWB(작업예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의제라고 설명함
- 이 의제와 관련하여 내년 6월(3~4일, 파리)에 OIE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가축질병 위험관리 분야에 OECD가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자함.
 - 상기 국제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가축질병의 파급영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 ② 가축질병 위험관리 정책이 축산농가와 식품(육류) 시스템의 경제적 유인에 미치는 영향
 - ③ 가축질병 관련 정책결정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안
 - 가축질병 위험관리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두 가지의 관련 작업을 소개함.
 - ① 국가별 특정 질병관리나 정책구조에 대한 경제적 분석(FMD, 보상 및 비용분담, 예찰 및 정보 관련 제도적 발전 등)
 - ② 가축질병과 통제수단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통계 구축 개선 연구(예를 들어 백신과 살처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상대적

평가 등)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가축질병 관련 사무국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영국 : 과학과 경제학이 결합되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논의의 핵심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두어야 함.
 - 캐나다 : 가축질병 문제는 농업생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넘어 인류 보건(건강)과도 연결됨. 캐나다 정부는 '건강한 가축, 건강한 캐나다 (Healthy animal, healthy Canada)'를 발간하였는데 사본을 사무국에 전달하겠음.
 - 네덜란드 : 가축질병에 대응한 정책 수단(백신 프로그램 등)의 선택이 중요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수준이 어떤지 문의함.
 - EC : 국제회의의 대상(청중)이 누구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미국 : 가축질병 연구는 ERS에서 수행하고 있음. 학제 간 연구뿐 아니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함. Bio-security, 불확실성, 무역 이슈들도 포함되어야함.
- OIE는 가축질병 문제는 Bio-security와 Bio-safety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발병 시 조기대응이 중요하며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이 감소함. 모니터링 체계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보험, 보상 등을 포괄하는 책임(비용) 분담 틀 설계,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으며 국제회의에서의 논의 초점을 가축질병에 관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두겠음. 따라서 국제회의에는 경제와 과학 분야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농업인단체, 환경단체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국제회의 발표주제와 참가자들을 사무국에 제안하고 연말까지 이 분야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개도국 소농의 위험관리 : 보고서 논의>

- 사무국은 보고서에서 개도국의 소농이 직면한 위험을 형태별로 정의하고 계량화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동안 OECD가 수행한 회원국 위주의 위험관리 연구에서 그 대상을 개도국(브라질, 중국, 베트남 사례분석)까지 확장하고

이들 국가의 소농이 직면한 농업생산, 농가소득, 식량안보 등의 위험에 대해 분석함.

- 대다수 회원국들은 위험관리 연구의 대상을 비회원국까지 확장함으로써 보고서의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함. 다만 통계나 분석방법에서의 한계,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함.
 - 네덜란드 : 개도국 소농은 소득수준이 대부분 빈곤선 근처에 위치하므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프랑스 : 선진국과 개도국이 직면하는 위험의 차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통계, 연도가 짧은 데이터, 제한된 분석방법으로는 상호 비교가 어려움.
 - 영국 : 개도국 소농이 직면하는 위험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EU :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함.
 - 스페인 : 개도국의 농업분야 보험과 신용, 정부의 개입 등이 선진국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 많은 선행연구들 중 일부만 검토된 측면이 있고 결론이 간단하고 협소함. 선행연구 부분을 보완하여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무국은 개도국 위험관리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제약, 분석방법의 선택 범위도 크지 않은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당부했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보완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국제 식량안보: 식품과 농업 시스템에 대한 도전>

- 사무국은 보고서가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3년 OECD 각료회의(MCM)에서 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의 실천적인 결과물으로써 발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분야 연구에서 다른 국제기구와는 차별되는 OECD의 비교우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문의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영국 :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온 식량안보 문제를 잘 정리한 보고서임. 다만 이 문제에 있어 OECD만의 독창성이 필요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문의함.

- 호주 : 포괄적으로 정리가 잘 된 보고서임. 식량안보 분야의 OECD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며 농산물 시장의 교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길 기대함.
 - 일본 : 위험관리, 수요의 변화와 전망,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야하며 '국내생산'과 '수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
 - 스위스 :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보고서에 명기해야 함.
 - 노르웨이 : 식량안보와 무역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분석결과가 많이 존재하므로 식량안보에 대한 무역의 순기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많은 개도국이 OECD 정책을 참조하려고 하지만 실제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 적용이 어려움. 따라서 결론에 개도국을 위한 한 가지 정책만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캐나다 : 새로운 것은 없으나 다양한 논의를 잘 정리했음. 식량안보는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유무역이 해결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 네덜란드 : 작업계획에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농업생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미국 : 향후 작업에서 OECD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식량안보와 무역의 연계가 있어야 하고 자유무역이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임.
 - 한국 : 한국의 이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식량안보 관련 서한의 내용을 소개함.
 - EU : 당초 계획했던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 작성되었음. 여러 이슈들을 나열하기보다 이들을 결합하여 정책 틀을 제시해야 함. 어느 분야에 OECD의 기여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 : 생산성 증대, 농업분야 투자 확대가 중요하며 수출제한의 경우 해당국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 뉴질랜드 :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책은 자유무역임.
- 사무국은 식량의 가용성, 무역의 역할이나 한계는 국제시장의 위험 측면에서 다룰 수 있고 식량안보에서의 국내생산의 역할은 시장 개방 시 국내생산이 위축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접근할 필요 있다고 설명함.
-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단순히 집대성한(stock-taking) 측면이 강하며 전체를 개괄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synthesis) 보고서는 아니므로 계속적

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수정을 거쳐 내년 3월 APM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임.

<기타 사항>

○ 2013년 APM 의장단 선출

- 의장은 영국의 Adam Bell이 선임되었으며, 부의장은 프랑스의 Vanina Forget, 노르웨이의 Nils Bergset, 미국의 Steve Neff가 선출되었음.

○ 그 외 2012년 5월 APM의 결과보고서, Food chain network meeting, 인도네시아 농업정책보고서 관련 세미나 등의 개최 소식을 알렸으며, 향후 개최 예정인 글로벌 포럼(11.26), 농업위원회(CoAG, 11.27~29) 등에 대한 간단한 일정 소개가 있었음.

- * 수입국공조모임(Multi-functional meeting) : 일본의 주선으로 11월 13일(화) 한국, EU,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M 의제와 관련하여 토의하였으나, 식량안보 보고서에 대하여 수입국 간의 입장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그 외 의제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공조해야 할 이슈 없이 친목을 도모함. 다음 MF meeting은 농업위원회(11.25, 잠정) 시 노르웨이에서 주선기로 함.